병무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이후 배포 2026. 11. 4.(수) 15:30

“극장에서 만난 청춘들의 병역이야기” 병무청, ‘2026 청춘예찬 영화제’ 개최

- 총 228건 접수 작품 중 28편 선정·시상
- 참여형 영화제로 ‘내 작품이 상영되는 극장’ 경험

□ 병무청(청장 홍소영)은 11월 4일(수), 필름포럼(서울 서대문구)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상영하는 「2026 청춘예찬 영화제」을 개최하였다.

○ 2019년 국민 참여 공모전을 통해 병역이야기를 콘텐츠에 담아 온 이래, 처음으로 시상식 무대를 극장으로 옮겨 수상자가 자신의 작품이 걸린 극장에서 관객과 만나는 뜻깊은 시간 가졌다.

□ 이번 공모전은 ‘청춘의 여정, 병역을 이야기하다’ 주제로 100일간 총 228편의 영상이 접수되어 28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.

○ 대상의 영예는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의 현실적인 두려움을 진솔하게 그리며, 군 복무가 경력 단절이 아닌 성장과 책임의 시간임을 영상으로 유쾌하게 그려낸 ‘내 청춘의 찬란한 훈장’의 김우민 씨가 차지했고,

○ 최우수상은 오랜 해외 생활을 뒤로하고 자원입대한 실제 본인의 여정에 인공지능(AI) 프로그램 이용하여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연출한 ‘그리운 노래처럼’의 hwiwasoo팀(휘와 수팀)이 받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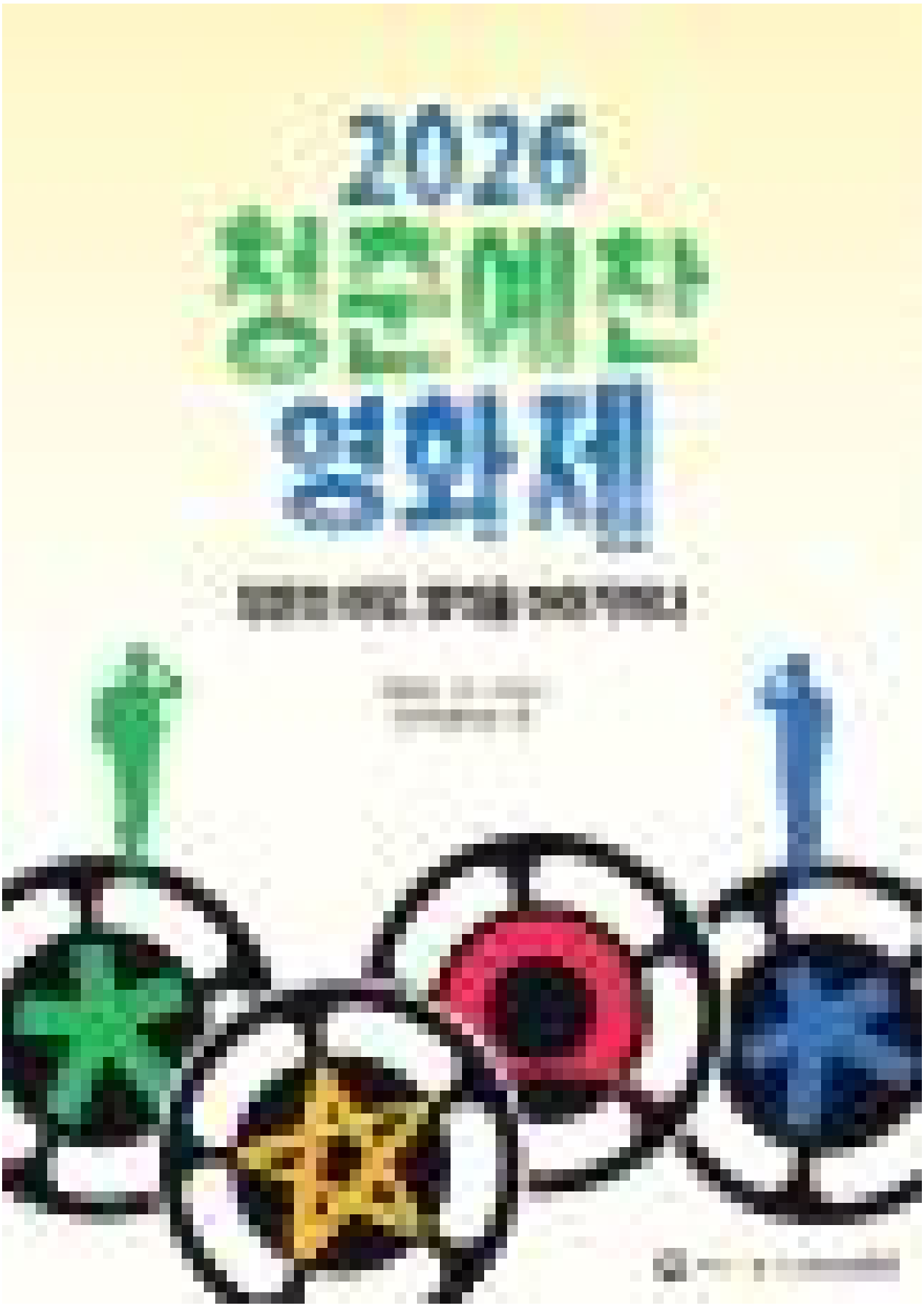
□ 본격적인 시상식 시작 전 수상작 포스터 전시회, 포토월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영화제 분위기를 한껏 더했다.

□ 행사는 시상식과 수상작 시사회에 이어 김용무 차장, 김헌 영화제 심사위원장(한양대학교 교수)가 수상자와 함께 영상을 통해 병역 이행에 의미와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도 진행되었다.

□ 김용무 차장은 “국민들이 직접 만든 병역 이야기가 극장에 상영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”고 전하며, “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병역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청춘예찬 포스터 및 행사 사진 각 1부. 끝.

담당 부서	대변인실	책임자	대변인	윤상만 (042-481-2701)
		담당자	사무관	한기설 (042-481-2702)


2026
월드컵 승부예측
일정표